

2025

Ver.29

CHANNEL 303

[Transitions]



PUSAN NATIONAL UNIVERSITY
Media & Communication

여는 말

뜨겁습니다.

과장을 자랑하던 새내기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날씨가 변하더니 불쾌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활기찬 새내기들을 보며 아련한 감상에 젖다가도, 곧 다가올 졸업을 생각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런 저에게 마지막 전공 수업인 ‘웹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활기를 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새내기로 돌아간 것 마냥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성찰했고, 변화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이번 29호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꿈을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학점을 위해 공부 시간을 늘리고, 좋아하는 이성이 생겨 외모를 가꾸며, 진로 상담 후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역시 멈추지 않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담은 29호는 은유적인 ‘키워드’를 통해 각 챕터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먼저, 현 시점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이야기하는

‘At this point’ 입니다. 새로운 보직을 맡으신 교수님과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편입생과 유학생. 매년, 매 학기 변화를 거듭하는 동아리처럼,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Turning point’로, 지난 겨울방학에 진행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루었습니다. 인턴십 기관 소개와 함께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학과와 현장 사이 다리를 놓아주신 분들도 만났습니다. ‘전환점’과 ‘이정표’가 된 값진 순간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적응해가는 경험들을 이 장에 녹여냈습니다.

이어지는 ‘Inflection point’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유튜브 저널리즘을 조명합니다. 기존의 흐름이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은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작은 변화도 큰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유튜브가 바로 그 변화, 새로운 대응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 유튜브의 등장은 저널리즘에 있어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으로, 이미 여러 매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널 303’은 다양한 미컴인들의 차별화된 시선에서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Critical point’에 다다른 사회관에서의 추억도 그렸습니다. ‘임계점’은 현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변화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부터 과방, 실습실, 예원정 그리고 우리의 강의실 303호까지. 새로운 사회관에선 혹여 ‘채널 303’의 의미가 잊히지 않을까, 이곳에 소중히 기록했습니다. 미컴의 상징인 303호, 미컴이 속한 사회대학 건물의 변화를 담은 만큼 사회관 특집과 함께 29호를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고, 29호가 출간될 여름 날씨처럼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사람, 역할, 매체, 공간의 변화를 다루는 동안 우리 역시 변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더 나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찬찬히, 재미있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ritical point, 사회관

: 기억 위에 짓는 내일

1. 사회관 공유 스팟 안내서

2. 과방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3. 낭만과 공론이 피어나는 공간, 예원정

I . 햇살과 낭만이 머무는 곳

II . 공론장으로서의 예원정, 그곳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III . 쉬어가는 코너. 들어가도 되는 잔디밭입니다만.

IV . 사라질 뻔한 예원정,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이야기

4. 19학번, 20학번, 24학번 미컴인들에게 묻다.

“당신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I . 1부

II . 2부

Critical point, 사회관

: 기억 위에 짓는 내일

5. 47년 사회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 I . 사회관 소개
- II . 우리는 사회관에서 살았다?!
- III. 라떼는 말이야~
- IV. 미컴, 사회관, 박재진 교수님 Let's Go-!
- V. 관리실 선생님 인터뷰
- VI. 입 벌려, 스포 들어간다!

6. 미컴과의 시간은 303호에 쌓인다

7. 실습실과 학과사무실

- I . 실습실, 어디까지 알고 있니?
- II . 배재영 조교님과 NEW미컴 과사

8. 사회과학대 노지현 학장, 김비아 부학장과의 대화

At this point,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인터뷰, 교수님을 만나다

- I. 기획처장 황성욱 교수님
- II. 주간교수 김범수 교수님
- III. 신임교수 김성학 교수님
- IV. “교수도, 엄마도, 리더도 슬기롭게” - 이신혜 교수님 근황
- V. “캠퍼스를 넘어 미국으로” - 김효정 교수님 근황

2. 나의 대학일기

- I. 조연우 학우
- II. 까웅세잇린 학우

3. 같은 꿈을 꾼다는 건

- I. 마케팅 연구회
- II. 작전명 청춘

4. 관심사를 매개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 I. 스포츠를 매개로. PRESS와 BBC
- II. 너도? 나도! 미컴 소모임 뜯어보기

CONTENTS

Turning point, 인턴십 기업 소개 및 인터뷰 :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첫걸음

1. 교육과 현장의 다리를 놓다
: 이슬기 교수님 인터뷰
2. 지역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국제신문
3. 부산경남의 30년을 전하다: KNN
4. 대한민국 MBC의 시작: 부산 MBC
5. 글로벌 부산 플랫폼: BeFM
6. 부산 영화의 꽃: 부산영상위원회

Turning point, 인턴십 기업 소개 및 인터뷰 :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첫걸음

7. 광고산업의 중심: kobaco
8. 종합광고대행사의 새싹: 와이위(YWE)
9.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다
: 그루잠 프로덕션
10. 모든 길은 카카오톡으로 통한다: 카카오
11. 게임문화를 더 멋지게: SBXG
12. 장태영 박사과정생 인터뷰

Inflection Point, 유튜브 저널리즘

: 오늘도 우리는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1. ‘유튜브 저널리즘, 너 누구야? ①’

2. 구분하기 모호하다고? 우리가 알려줄게!
: 전통 미디어 vs 유튜브 저널리즘

3. 303의 시선

: 303을 둘러싼 미컴인들의 시선은 어떨까?

- I. 미컴과 학생들의 시선
- II. 채널 PNU 학생 기자의 시선
- III. 졸업생 저널리스트의 시선
- IV. 교수님의 시선

Inflection Point, 유튜브 저널리즘

: 오늘도 우리는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4. 위기탈출 넘버원!

- I . 알고리즘 vs 민주주의
- II . 가짜뉴스 vs 저널리즘
- III. 종합적 노력

5. “아직 할 말 남았다..”

: 앞으로는 어떨까?